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마8:7)

◎ 4대 실천강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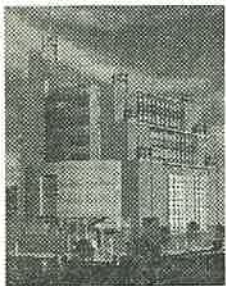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순례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바닥 철근 깔고 시멘트 붓기 전

새 예배당 건축현장서 특별기도회



새 예배당 굴착공사가 최종단계에 이룸에 따라 내일 현장에서 특별기도회가 열린다.

건축위원회(위원장 오정수 장로)는 17일 (월) 오전 10시 30분

부터 한 시간동안 교회에서 건축을 위한 기도회를 가진 후, 현장을 방문하여 특별기도의 시간을 갖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새 예배당 건축 공사가 삽질을 한 지 7개월

만에 드디어 굴착공사의 최종 단계인 바닥을 고르게 됐다. 이에 따라 바닥에 철근을 깔고 시멘트를 붓기 전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부터 기둥을 세우고 건물이 올라가게 되는 대역사가 시작되게 됨으로 하나님께 안전과 평안을 비는 특별기도의 시간을 마련케 된 것이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교회에서 있을 기도회에 참여가 어려운 성도들은 11시 50분까지 현장으로 오면 특별 기도에 동참할 수 있다.

기도회는 현장바닥에 내려가 흙을 밟고 열린다.

한편 교회는 바다에서 나온 돌 한 조각을 기념으로 보관키로 했다. 주된 피해를 덜기 위해 가급적 자가용 사용은 삼가주시기 바란다.

공동의회

집사 · 권사 선출에 관한 건

- 1. 때: 1999년 5월 16일(주일) 찬양예배 후
- 2. 곳: 1층 예배실
- 3. 참가대상: 본 교회 세례교인
- 4. 투표방법: 무기명 비밀투표, 1회 투표



가정의 빛에

성경적 부부관

박귀환(목사, 새가정부 지도)

현대의 가정 문제는 국가 사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이를 바로 가르치고 지도·편달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출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마11:16-17)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에 해체되어 가는 가정을 염려하러 피리를 불고 출추며 애곡하듯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 젊은 부부들이 결혼하여 이일 저일 바쁘다는 이유로 교회를 멀리하여 성경 연구와 예배에서 도피할 뿐 아니라 심지어 아내 혹은 남편과 떨어져 지내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적 모순은 가정의 파멸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형대로 되돌아가 축제의 기분을 만끽하며 삶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가정들은 다음의 세 가지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부부관의 첩경입니다.

첫째 예배를 회복하여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 예배의 구축입니다.

둘째 부부의 균형 있는 영적 성장과 부부간의 버팀 줄이 되기 위해 함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하는 기독교적 인간화의 개조입니다.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의 시간을 갖고 말씀대로 생활에 적용해 봄으로 참된 즐거움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곧 기독교적 가정의 교회화입니다.

하나님은 결혼 전에는 남자에게 여자가 필요하도록 하셨고 결혼 후에는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축제를 주셨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한 첫째 조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날 때 가능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이미 한 몸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과정입니다. 남편의 위치는 아내보다 먼저이며 아내의 근원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며 사모함을 받으며 다스릴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이 머리 노릇을 잘 하지 못하면 죄와 혼돈만 낳을 뿐입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사랑하라는 것

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 보살피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생명을 바쳐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내는 남편과 함께 영생의 유업을 상속 받을 동반자임과 동시에 남편의 보살핌이 필요한 연약한 그릇인 때문입니다.

아내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남편을 위해 지어졌. 남편을 돕는 배필입니다. 아내는 자신의 처신에 따라 남편의 뼈를 썩게 하거나 남편을 영광스럽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여성은 두 주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아내의 복종은 연합을 정착시키는 강한 본드입니다. 복종과 사랑이 강할수록 연합은 강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곧 남편을 돕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혼은 결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만든 마귀의 발명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선언하셨으므로 결혼의 영구성을 재확인 하셨습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며 우리들의 부부관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용히 묵상해 보는 것은 아름답고도 절실한 일일 것입니다.

이사야 강해

앗수르군의 위험

이사야 21장 13 - 17절

이 예언은 환상(vision)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입니다. 환상의 골짜기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예루(이레)와 살렘(살롬)의 합성어입니다. 이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제물을 준비하신 사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살롬은 모든 좋은 것, 평강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축복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며 꿈이 깃든 도시에 하나님의 우월한 경교가 발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제 구실을 못할 때에는 크게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환상의 골짜기가 파멸을 당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입니다.

1. 열락에 취한 성 예루살렘

“네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이고”(1절). 이스라엘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빗물을 받기 위해서 지붕을 아주 넓게 짓습니다. 이곳은 적군의 동향을 살피기 위한 방대 역할도 하지만 때때로 연회장으로 사용됩니다(삿 16:27).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지붕에서 열락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술 위하고 먹고 마시며 춤추는 일에만 시간을 보내고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락에만 취해 있었습니다(2절). 성 안에는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술 취해서 떠드는 소리가 계속 되었습니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할 예루살렘 거민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대신 술에 취하여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고만 했습니다(12 - 13절).

그러므로 선지자는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이 죄악은 죽기까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14절). 죄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 않으시면 죄가 해결되지 않고, 예수님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희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망할 짓만 했습니다. 거짓과 속임과 불법이 성행하는 사회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2. 비굴한 도망자가 많은 성 예루살렘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게 되었는데 선지자의 마음에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징계의 때는 앗시리아 군대가 아니고 만군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열락에 빠져있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곧 공포에 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선지자의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이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폐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함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라다 열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 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사 22:1 - 7)



이종운 목사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2절).

전쟁에 나가서 조국을 위해 죽었다면 차라리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하겠지만, 예루살렘에 앗수르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의 젊은이들은 모두 도망을 갔고, 결국에는 도망을 가다가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쟁이 나니까 지도자들까지도 도망을 가니 참으로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3절).

예루살렘이 전쟁에 진 이유는 예루살렘 백성들은 전쟁의 소문만 듣고 모두 도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도망을 치다가 포로로 붙들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3. 선지자의 고뇌

선지자는 동족의 멸망을 목전에 두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4절). 자기가 슬퍼하는 것을 말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열락에 취한 부류들이 선지자까지 자기들의 열락에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본 예언자는 저들과 함께 즐거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픔 중에 위로 받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5절 이하를 보면 산헤립이 침략을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각종 예물과 공물을 느스웨 성으로 가져와 산헤립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라가 이렇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슬퍼하며 우는 모습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시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와 구원이며 예수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죄인에 대한 연민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과 이사야는 각각 자기 백성의 멸망을 예언하고 우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생각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깊은 슬픔에 빠졌던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민족을 보고 누가 울어야 합니까? 이 나라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치 비탈길로 마차가 굴러 내려가는 것과 같이 끊어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위험한 정도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 나라를 돌이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하여 우는 사람이 많아지는 길뿐입니다.

우리는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나는 통곡하도다”라고 한 이사야의 고백과 고뇌가 우리의 것이 되어 이 작은 입술을 통하여 오늘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수집사 후보

번호	이름	출생연도	수세년도	교회봉사	직업(근무처, 직위)	가족
1	허상한	1947	1988	새가족부 교사, 찬양대원, 다락방장, 교구간사	삼진양행 대표	최재춘 집사와 1녀
2	신순우	1940	1985	안내위원, 비전2020운동본부 위원, 찬양대원, 다락방장	공무원(농수산물유통공사 감사)	김복순 집사와 1남 4녀
3	이남성	1948	1966	사랑부 교사, 찬양대원, 헌금위원, 바울 5선교회 부회장, 다락방장	새마을금고(중곡동) 부장	최영란 집사와 1남 2녀
4	정동호	1958	1988	미가엘·글로리아찬양대 부대장, 교구간사, 새가족부 교사, 목회자세미나 봉사	후생약국 대표	김정임 집사
5	최재규	1947	1961	헌금위원, 찬양대원, 장년부 교사, 다락방장	두산건설링 대표	천정화 집사와 1녀
6	김규태	1953	1971	예배위원, 찬양대원, 새가정부 교사, 베드로 2부회장, 다락방장	태산기획 대표	박미혜 집사와 1남 1녀
7	김금준	1959	1974	찬양대원, 요한 2선교회장, 다락방장	국민은행 과장	이현주 집사와 1남 1녀
8	송인권	1956	1992	헌금계수위원, 청년부 교사, 베드로 6선교회장, 다락방장	(주) 상보전자 대표이사	윤숙지 집사와 1남
9	김현영	1943	1989	사랑부 교사, 찬양대원, 다락방장	운수업	최현인 집사와 2남 1녀
10	오유식	1946	1984	찬양대원, 헌금계수위원, 바울 제1선교회장	두건(주) 대표	이봉규 집사와 3녀
11	김용호	1947	1974	사랑부 교사, 다락방장	회사원(서울파이낸스(주))	한건석 집사와 1남 2녀
12	장양일	1943	1970	차량부 위원, 장년부 교사, 찬양대원, 다락방장	자영업	정정숙 권사와 1남 1녀
13	윤성남	1954	1970	찬양대원	서울오토 대표	이영희 집사와 2남 1녀
14	윤운식	1943	1979	소망부 교사, 찬양대원, 다락방장	운수업	함은희 권사와 1남 1녀
15	탁경준	1942	1989	새가족부 교사, 찬양대원	정진공업(주) 대표	전정숙 권사와 2남
16	이태원	1950	1980	중등부 교사, 베드로 4선교회 회장, 찬양대원, 다락방장	프랑스대사관 직원	최경희 집사와 2녀
17	이학주	1946	1984	장년부 교사, 헌금위원 역임	울산대학 교수	이은옥 권사와 2녀
18	안인호	1956	1986	고등부 교사, 찬양대원, 다락방장	안 이비인후과 원장	이명신 집사와 1남 1녀
19	양인수	1953	1984	새가족부 교사, 찬양대원, 다락방장, 베드로 1선교회장	백두산 보험 대표	이명희 집사와 2녀
20	정무균	1946	1965	헌금계수위원, 다락방장, 베드로 1선교회 부회장	우리밀칼국수 대표	이영희 집사와 2남
21	김성준	1952	1974	예배위원, 베드로5선교회장, 다락방장, 찬양대원	(주)켈코 대표	김선영 집사와 2남
22	곽동희	1957	1979	다락방장, 건축위원회 위원, 찬양대원	모양종합건축사무소 대표	이지은 집사와 1남 1녀
23	강종찬	1949	1965	고등부 교사, 다락방장	학원장사	권귀옥 집사와 1남 1녀
24	유 신	1940	1988	찬양대원, 다락방장	성동기업 대표	조상희 집사와 2남
25	고영철	1946	1965	찬양대원, 차량부 위원, 다락방장	그린빌리지워드 대표	박종래 집사와 2녀
26	이영조	1950	1975	다락방장, 고등부 교사	쌍용영월공장장	이영자 집사와 2남 1녀
27	김종근	1949	1965	예배위원, 찬양대원, 헌금계수위원, 다락방장	BYC(주) 영업부장	최혜순 집사와 1남 1녀
28	김재중	1950	1978	초등부 교사, 건축위원, 다락방장	건축회사 이사	이신애 집사와 1남 1녀
29	하인선	1949	1965	무임안수집사, 헌금계수위원, 다락방장	군포성신신경외과 원장	남태순 집사와 1남 2녀
30	권장철	1943	1983	중등부 교사	기우공영 대표이사	1남 1녀
31	이강인	1956	1985	사랑부 교사, 다락방장	해진상사 대표	허숙 집사와 1남
32	한주찬	1948	1985	교구간사, 찬양대원, 다락방장	자영업	김수호 집사와 1녀
33	박성현	1958	1986	대학부 교사, 찬양대원, 비전2020운동본부 위원, 다락방장	(주) 동우월드 대표이사	김은숙 집사와 1남 1녀
34	유근중	1955	1983	초등부 교사, 찬양대원, 다락방장	국회 사무처	배은희 집사와 1남 1녀
35	최차순	1959	1977	청년부 교사, 찬양대원, 요한 2선교회장	일동 메디텍 차장	백혜숙 집사와 2녀
36	안창희	1936	1968	헌금계수위원, 찬양대원, 다락방장	(주) 효성물산 소장	정봉금 집사와 4녀
37	김종윤	1945	1985	다락방장	동아일보사 관리소장	이종돌 집사와 1남 2녀
38	김광옥	1952	1968	찬양대원, 베드로 4선교회 부회장	타임연구 사장	서영희 집사와 2남
39	김시환	1960	1986	예배위원, 유아부 교사, 다락방장	보연통상 대표	김정란 집사와 2녀
40	이재윤	1939	1959	소망부 교사, 다락방장	문정중학교 교감	이용자 집사와 1남 1녀

권사 후보

▶ 가나다순

가원정 권길자 박선자 김명옥 김선희 김성은 김수호 김윤자 김인희 김치순 김희숙 나옥녀 남태순 박명석 박영자 박윤희 서옥덕
선연자 송두심 송옥혜 신동기 심화숙 여영숙 여현진 오영자 왕경희 이민자 이봉규 이연숙 이영숙 이영희5 이용자1 이운진 임찬희
임윤자 전수자 정연택 정현숙 조상희 채덕희 최근자 최봉애 최원자 최일춘 한건석 한춘홍 황노전 황보추자 황인숙 황계연

“뜻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누가 주의 택하신바 되어 ...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행1:24, 25)

북한난민서명운동 천부장 탄생

통일기념관 건설때 원본 영구 보존키로

북한 난민보호 UN청원 서명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1천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이가 2명 나왔다.

이는 지난 4월 16일 북한 난민보호를 위한 일천만명 서명운동 발대식 이후 한 달 만에 이룬 기록이다.

제 1호 '천부장'의 영예는 이수자 권사(가브리엘 찬양대?)에게 돌아갔다. 이 권사는 지난 4월 말에 2040명의 서명을 받았다.

또 박순봉 권사(이웅선 장로)는 5월 14일까지 3천명의 서명을 받아 지금까지 최대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청원운동본부(본부장 김상철 장로)는 서명운동에 심부장, 오심부장, 백부장, 천부장 등성 경제도를 도입하여 기록으로 남겨 후일 남북통일이 된 후 통일기념관이 생기면 이들의 이름과 함께 서명 원본을 영구 보존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종윤 목사)에서는 13일 전국의 지방 지부장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 27일에는 자문위원과 지도위원을 초청 연석회의를 준비 중에 있다.

UN청원추진위원회는 기아를 피해 북한을 탈출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난민으로 인정

할 것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난민촌 시설을 설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달부터 한국과 전세계를 대상으로 1천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김치 동문회 총회 17일 개최

한국교회개신연구원(김치) 동문회(회장 차정운 목사) 총회가 17일(월)오후 5시 30분 강남 YMCA 3층 그릴 및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임원을 선출하며 새로 동문이 된 목회자를 환영하는 순서도 가질 예정이다.

한국교회개신연구원동문회는 1994년 3월에 창립되었으며 동문회원의 자격은 한국교회개신연구원이 추천하는 목회자신학세미나 네 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에게 주어진다.

▶ "서울교회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임광식 (장로, 1교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영원히 죽는 불쌍한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다시 살려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 위에 보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주님께서 특별한 뜻이 계셔서 우리 서울교회를 세워주시고 신실하고 충성된 종을 세우셔서 말씀으로 우리 잠자는 심령을 깨우쳐 주시기에 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 중심으로 육신의 평안만을 찾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사 하늘나라 중심의 삶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게 하시니 구원의 주님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된 서울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둘째로 자신들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손해만 안주는 정도의 미지근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

람을 살리도록 전도회를 조직하고 목회자 세미나, 김치 세미나, 비전2020운동을 펴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인도하는 서울교회를 사랑합니다.

셋째로 복음의 센터가 될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주시고 건축허가를 받게 하시고 설계와 시공할 회사를 보내 주시고, 물자와 기술로 집을 짓지 않고 믿음과 기도로 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이 교회 안에서 체험하게 하시니 서울교회를 사랑합니다.

넷째로 마지막 심판날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마지막 심판날이 가까왔다는 것을 예고하는 천재지변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때에 실망하지 않고 깨어서 준비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날마다 믿음으로 행하며 사랑으로 수고하며 소망 중에 참으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서울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등정

- * 어버이 주일이었던 지난 주일 교역자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전인화·권순단 권사가 장한 어머니 상을, 장정화 집사가 효행상을 각각 수상했다.
- * 박창희 집사(5교구)는故 안의경 집사를 기념하여 교회에 승용차를 기증했다.
- * 루디아 제 2전도회는 식당에 주방용품을 기증했다.
- * 이번 주 식사는 이종혁·박은경 집사가 가정에서 제공했다.
- * 에스더 제 2전도회는 16일(월)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 방문을 한다.

■ 제 15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 * 5월 17일(월) 오후 2시 - 5시 20분
 - 제 1교시 / 여호수아서 연구 (이종윤 목사)
 - 제 2교시 / 개교회 전도폭발전략
- 나점일(주안장로교회)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설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을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을 선출할 수 있도록
2.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3. 목회자신학세미나와 서울성경대학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